



소개

왕순과 함께하는

'디아워비포'

'디아워비포' 최신 에피소드의 주인공

프렌드 오브 하우스 왕순

주요 정보

- **다재다능한 챔피언** 개인혼영을 주 종목으로, 네 가지 영법을 아우르는 적응력과 절제력을 꾸준히 갈고닦아온 선수
- **세련된 감각이 묻어나는 스타일** 모던한 여유로움과 사대를 초월한 품격이 조화를 이루며, 균형감과 세심함이 돋보이는 심플한 스타일
- **'디아워비포'에서 나누는 친밀한 순간** 경기 직전의 순간을 돌아보며, 올림픽 수영 챔피언으로 성장해 온 경험과 그의 여정을 이끄는 마음가짐을 들여다보는 시간

여거 르쿨트르는 프렌드 오브 하우스이자 올림픽 수영 챔피언인 왕순(Wang Shun)과 다시 한번 만나, 결정적인 순간을 앞둔 준비 과정을 조명하는 메종의 인터뷰 시리즈 '디아워비포'의 새로운 이야기를 선보입니다. 이번 에피소드에서는 정밀함이 핵심이며, 동작 하나하나를 끊임없이 다듬고 찰나의 순간이 모든 것을 좌우한다는 공통점을 지닌 두 세계, 워치메이킹과 수영이 만납니다.

다재다능한 챔피언

개인혼영은 변화와 적응이 핵심인 종목입니다. 한 번의 경기에서 선수는 각기 다른 리듬과 기술, 신체적 조건을 요구하는 네 가지 영법을 차례로 구사해야 합니다. 또한 각 영법을 숙달하는 것뿐만 아니라, 한 영법에서 다른 영법으로 매끄럽게 전환하는 능력 역시 탁월한 결과를 위해 중요합니다. 왕순은 끊임없이 변화하는 상황에 적응하며 자신만의 수영 스타일을 만들어 왔습니다. 그는 하나의 강점에만 의존하기보다 경기의 흐름에 따라 리듬과 페이스를 조절하고, 여러 기술 사이에서 완벽한 균형을 찾아내는 능력을 키워왔습니다. 최고의 경지에 이르면 이러한 다재다능함은 본능이 됩니다. 수천 개의 훈련을 통해



신체는 변화에 자연스럽게 반응하고, 오랜 경험은 언제 체력을 안배하고 언제 스피트를 올려야 하는지, 또 레이스 전체의 흐름을 어떻게 통제해야 하는지에 대한 깊은 통찰을 가져다줍니다.

이러한 다재다능함과 통제력을 바탕으로 왕순은 독보적인 위치에 올랐습니다. 그의 탁월함은 단순히 같은 동작을 반복하는 데 있는 것이 아니라, 서로 다른 방법을 자신감 있게 오가면서도 완벽한 연속성을 유지하고 끊임없이 변화에 적응하는 데 있습니다. 서로 다른 전문성을 하나로 조화시키는 이러한 능력은 한 자붕 아래 다양한 하이위차메이킹 공예 분야가 공존하는 예거르쿨트르의 매뉴팩처 이틀리에와도 깊이 맞닿아 있습니다. 각기 고유한 언어와 노하우를 지닌 수많은 공예 기술은 하나의 위대한 작품을 완성하기 위해 한데 어우러집니다.

세련된 품격이 돋보이는 독보적인 감각

왕순의 스타일에는 그가 수영에 임하는 마음가짐을 잘 보여주는 특유의 차분한 자신감이 담겨 있습니다. 현대적이면서도 세심한 그의 스타일은 유행을 따르기보다 자신에게 자연스럽게 어울리는 것을 선택하는 감각에서 비롯됩니다. 세련된 실루엣과 편안한 스타일을 자연스럽게 넘나들며, 지나치게 화려한 디자인보다는 균형과 비율을 중시합니다. 이처럼 자연스러운 자신감은 예거르쿨트르의 철학과도 맞닿아 있습니다. 매종은 진정한 우아함을 과시가 아닌 개성을 표현하는 수단으로 바라보며, 깔끔한 디자인과 섬세한 디테일을 통해 세련된 감각이 돋보이는 타임피스를 제작해 왔습니다. 유산에 깊이 뿌리를 두면서도 끊임없이 새롭게 해석되는 매종의 작품은 유행을 넘어 착용자의 개성을 드러냅니다.

왕순 역시 스타일에서 이와 같은 절제된 감각을 보여줍니다. 운동선수로서 그를 성장 시킨 절제력과 집중력을 반영하는 동시에 개성과 자기 표현을 위한 여유도 놓치지 않습니다. 리베르소는 이러한 정신을 구현하는 타임피스로, 독창적인 디자인과 뚜렷한 개성을 간직해 세대를 넘어 사랑받아 왔습니다. 왕순과 예거르쿨트르에 진정한 우아함은 결코 과시에서 비롯되지 않습니다. 균형과 자신감, 세심하게 다듬어진 개성을 통해 자연스럽게 드러납니다.

〈디아워비포〉 장제성을 빛내는 숙련의 시간

예거르쿨트르는 〈디아워비포〉 시리즈를 통해 매종의 프렌드 오브 하우스이자 올림픽 수영 챔피언인 왕순을 소개합니다. 자신의 여정을 돌아보며 왕순이 직접 리베르소 케이스를 조립하는 과정과 함께 진행되는 이번 인터뷰는 카메라 밖 인터뷰어와의 편안한 대화 속에서 매종의 세계관과 왕순의 경험을 연결해 나갑니다. 인터뷰는 위차메이킹을 시작으로 자연스럽게 그의 가치관, 추억, 그리고 관점으로 이어지며 차분하고 진솔한 순간들을 담아냅니다. 왕순은 준비와 경기력의 관계는 물론, 자신의 여정을 만들어 온 경험들을 돌아봅니다.



그의 성취 뒤에 숨겨진 훈련 과정 경쟁에서 요구되는 정신적 통제력 그리고 선수 생활을 거치며 변화해 온 시간과의 관계를 조명합니다.

'*디아워비포*'는 단순한 인터뷰를 넘어 한 사람의 진정성 있는 내면을 조명하는 시리즈로, 왕순의 수영 경험과 워치메이킹 세계를 자연스럽게 넘나드는 대화를 통해 인내와 정밀함, 그리고 끈기를 통해 숙련된 경지에 이를 수 있다는 공통된 신념을 탐구합니다. 훈련의 리듬과 반복은 워치메이킹 장인의 작업과 맞닿아 있으며, 경기의 승패를 가르는 찰나의 순간은 기계식 워치메이킹의 핵심인 끊임없는 정밀함의 추구를 떠올리게 합니다.

자연스럽고 꾸밈없는 방식으로 촬영된 이번 에피소드는 왕순의 솔직함, 집중력, 사려 깊은 진정성을 담아냅니다. 올림픽 수영 챔피언이라는 모습 뒤에 자리한 인간적인 면모와 그의 여정을 만들어온 헌신을 엿볼 수 있는 특별한 기회를 선사합니다.

예거 르쿨트르는 '*디아워비포*'의 새로운 챕터를 통해 탁월함을 향해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인물들과 교감하며, 시간과 장인 정신 그리고 성취에 대한 새로운 관점을 계속해서 제시합니다.

왕순 소개

1994 년 중국 닝보에서 태어난 왕순은 6 세에 수영을 시작해 뛰어난 두각을 나타내며 중국 국가대표로 발탁되었습니다. 접영, 배영, 평영, 자유형을 모두 구사하는 개인혼영을 주 종목으로 하며, 2012 년 런던 올림픽을 시작으로 2016 년 리우 올림픽 200m 개인혼영에서 동메달을 목에 걸었습니다. 이후 2021 년 도쿄 올림픽 200m 개인혼영에서 1 분 55 초의 기록으로 아시아 남자 수영 선수 최초의 올림픽 금메달을 차지하는 대업을 달성했으며, 2024 파리 올림픽에서 동메달을 추가하며 세계 정상급 선수로서의 입지를 이어갔습니다. 오랜 선수 생활과 눈부신 올림픽 성과를 바탕으로 중국 수영을 대표하는 독보적인 선수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디아워비포 소개

'*디아워비포*'는 예거 르쿨트르가 선보이는 인터뷰 시리즈로, 특별한 여정을 만들어낸 이들의 보이지 않는 순간에 주목합니다. 예술가, 가수, 배우, 운동 선수 등 각 분야의 인물들과 함께하며, 탁월함과 창의성 그리고 헌신이라는 매종의 가치를 조명합니다. 각 에피소드는 한 인물의 커리어에서 중요한 전환점이 된 순간을 돌아보는 동시에, 그 이전의 준비 과정과 고민, 그리고 묵묵한 노력의 시간을 함께 비춥니다. 워치메이킹의 장인 정신과 맞닿아 있는 이야기들을 통해 예거 르쿨트르는 탁월함이 결코 우연히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점을 강조합니다. 진정성 있고 담백한 시선으로 풀어낸 '*디아워비포*'는 열정과 절제 그리고 오랜 헌신을 바탕으로 자신만의 길을 만들어온 이들의 또 다른 면모를 보여줍니다.



1833년부터 혁신과 창의성에 대한 끊임없는 열정과 빌레드주의 평화로운 자연 환경에서 영감을 받은 예거 르쿨트르는 컴플리케이션에 대한 전문성과 메커니즘의 정확성으로 독보적인 워치메이커로 활약하고 있습니다. 워치메이커의 워치메이커™로 알려진 매뉴팩처 아틀리에는 1,400 개 이상의 다양한 칼리버 제작을 통해 독창적인 정신을 끊임없이 표현해 왔으며 430 개 이상의 특허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예거 르쿨트르의 워치메이커는 190 년 이상 축적된 전문 지식과 열정을 바탕으로 정밀한 초침단 메커니즘을 디자인, 제작, 마감, 장식하며 과거와 미래를 연결하고 언제나 시간의 흐름과 함께합니다. 82 곳의 아틀리에, 108 가지의 공예, 그리고 69 가지 시그니처 기법을 포함한 총 235 가지의 노하우가 한데 모인 매뉴팩처 아틀리에에서는 독창적인 기술과 아름다운 미학, 그리고 절제된 세련미가 한데 어우러진 탁월한 파인 워치메이킹 작품이 탄생합니다.